

“대선 공약에 민·군공항 이전 등 경제현안 반영을”

ECONOMY

2025년 5월 8일 목요일

광주상의, 16건 핵심정책 발굴 캠프별 전달

광주경총,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방침

광주 경제계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각 분야별로 핵심 정책공약을 발굴,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하는가 하면,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7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정책공약 16건을 발굴하고 이를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공약 과제는 지역 산업 현장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광주 민·군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지역과 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이는 광주·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산업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울러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 지원을 지지하며,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을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안정적 재정지

원, 광주 AI 생태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타 면제 추진 등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국가 고차기장 연구소의 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와 소재산업 중심지인 광주가 기초과학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피력했다. 문화분야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립광주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균형 배치를 통한 유치 필요성이 포함됐다.

기후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및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계 분야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

한 기업상속촉진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해 기업 경영 연속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서에 담았다.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인 광주경총의 목소리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광주경총은 최근 대선 공약과 관련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단체는 “단순히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업종별·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저금리 대출, 보증 지원,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 및 역량 강화와 상권 활성

화·특성과 지원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온라인 판로 개척, 스마트 기술 도입, 디지털 마케팅 교육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시설 현대화보다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생카드 등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 편의성 제고, 주차타워 및 냉난방 화상실 환경 개선 등 실질적 고객 유입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상권과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테마 개발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배달앱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도 역설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어촌공사 '지하수담' 개발

국가 R&D사업 착수 토론회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담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나주 본사 무궁화 2실에서 지하수담 국가 R&D 수주기념 발표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지하수담은 지하에서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관정이나 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올해 4월 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담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담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의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지하수담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지금까지 5개 농업용 지하수담과 1개 생활용 지하수담을 설치·운영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하수담'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마중물 역할”

유병용 LH 광주전남본부장 취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 지역본부장은 유병용 신임 본부장(사진)이 취임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출생인 유병용 신임 본부장은 석산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LH에 입사했다.

본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인천 본부 주거복지처장을 거쳐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를 역임했으며 특히 신축매입약정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을 진두지휘했다.

유 신임 본부장은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과 주택시장 안정화, 주거복지 서비스 확

대, 청렴 공정, 현장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고흥 국가산업단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약 5200억원의 사업비 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전임 정태성 본부장은 정부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인 ‘용인 반도 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단장으로 영전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형형색색 꽃다발 선물하세요” 광주신세계가 본관 지하 1층 ‘남산농원’에서 봄 향기 물씬 풍기는 다양한 꽃들을 선보이며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작약, 프리지어, 버터플라이 라넨쿨러스 등 향긋한 봄내음을 지닌 꽃들이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어버이날을 맞아 선물하기 좋은 풍성한 카네이션 바구니도 마련돼 있다. 전남 영암에 위치한 남산농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4만원 이상 꽃다발, 꽃바구니 사전 예약 주문 시 카네이션 화분 1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레트로 감성 살린 한정판 ‘오비맥주’ 출시

60년대 초창기 디자인 재해석...브랜드 정통성 강조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60년대 ‘OB맥주’ 디자인의 레트로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이번 제품은 오비라거의 초창기 디자인을 복원한 것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OB맥주’ 브랜드의 정통성과 감성을 표현했다.

한정판 OB맥주는 1948년 ‘동양맥주주식회사’(Oriental Brewery)를 인수한 이후 생산된 60년대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알코올 도수는 4.6%이며, 330ml 캔 제품으로 한정 수량 생산돼 이달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에도 오비맥주는 1980년대 OB 브랜드 디자인을 재현한 ‘오비라거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행사 초도 물량 16만개가 단 5일 만에 완판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감성을 입증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초창기 ‘OB맥주’에 대해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한정판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 맥주의 역사와 함께한 오비맥주는 전통과 품질을 기반으로 세대 간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

삼성전자, 美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문 인수

명품브랜드 B&W 등 5000억 규모...8년만에 대규모 M&A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이하 하만)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미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인수하며 고성장 중인 글로벌 오디오 사업 강화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선 것은 2017년 약 9조원을 투자해 하만을 인수한 이후 8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하만이 6월(현지시간)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5000만 달러(약 5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하만이 인수하는 럭셔리 프리미엄 오디오

사업은 바우시앤윌킨스(이하 B&W)를 비롯해 데논, 마란츠, 폴크, 테피니티 테크놀로지 등이다.

1966년 영국에서 설립된 B&W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고품질 사운드로 오디오 전문가와 애호가에게 큰 사랑을 받는 럭셔리 오디오의 대표 브랜드다. 1993년 출시 이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피커’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은 B&W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라우드 스피커 ‘노틸러스’는 대당 1억5000만원이 넘는다.

하만은 JBL과 하만 카돈, AKG, 인피

니티, 마크 레빈슨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기반으로 지난해 포터블 오디오에서 약 6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 규모가 큰 헤드폰과 무선이어폰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카오디오 사업에서도 하만 카돈과 JBL, 뱅앤올룹슨 등 기존 브랜드 외에도 B&W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자동차 업체와 고객에게 브랜드별 차별화된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며 사업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의 모바일, TV, 가전 사업과의 시너지 확대도 기대된다.

하만은 연내에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문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여수광양항 수출입 지원센터’ 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글로벌 수출입 무역긴장 등으로 인해 해운·물류분야의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수광양항 수출입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발빠른 조치를 위해 센터를 구성했다. 항만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입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운영부사장이 총괄하는 3개의 전

담반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로 타깃 마케팅, 원활한 수출입을 위한 기업 지원 활동 등을 추진해 운영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공사는 해양수산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에 참여하는 등 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gwangnam.co.kr

‘장인정신과 AI시대 비전’ 주제 워크숍

광주시명장회, 38개 분야 92개 직종서 참여

사단법인 광주시명장회는 최근 ‘장인정신과 인공지능 시대의 비전’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38개 분야 92개 직종의 명장 120여명이 모인 이번 워크숍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인정신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유재용 자동차 명장은 ‘인공지능 시대 자동차 변화와 환경’ 주제 강연을 통해 미

래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AI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마칠석 제과제빵 명장이 ‘한국 제과·제빵의 유산과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제과·제빵 분야에서 장인정신과 AI 기술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 명장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변화하는 전통적 환경, 전통과 기술의 조화와 공존 등 장인정신의 미래 지향에 대해 공유했다.



임종철 광주시 명장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AI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며 “광주시 명장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삼성, TV 반납하면 포인트 혜택

‘OLED로 바꿔보상’ 프로모션

삼성전자는 자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OLED로 바꿔보상’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삼성 OLED 행사 모델을 구매한 고객이 제조사와 상관없이 사용하던 구형 TV를 반납하면 보상 혜택으로 3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펌버시 포인트를 증정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삼성스토어, 삼성닷컴 등은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또 삼성전자는 글래어 프리(Glare Free) 기술이 적용된 2025년형 삼성 OLED(SF95 모델) 구매자 중 해당 기능 사용 후기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리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글래어 프리는 햇빛이 강한 낮이나 조명 아래에서도 빛 반사 걱정 없이 생성한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42형, 48형, 55형의 삼성 OLED와 결합이 가능한 2025년형 ‘무빙 스타일’ 출시를 기념해 ‘삼성 무빙스타일 출시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닷컴에서 ‘삼성 무빙스타일 출시 소문내기’ 이벤트 이미지를 다운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주유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한층 강력해진 ‘3세대 AI 4K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5년형 삼성 OLED 라인업을 출시하고 OLED TV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현아 기자